

# 평화로웠던 미얀마



양승희 작 '행복한 모습'

# 쿠데타 저항 미얀마



## Myanmar

Bagan Photographers Group '우리는 결코 복종할 수 없다'

'광주는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합니다.' 광주의 사진 작가들은 미얀마의 평화로운 모습을 기억한다. 몇차례씩 미얀마를 방문한 그들은 탁발에 나선 어린 동지승들의 모습이나, 세상에 때묻지 않은 아이들의 환한 얼굴, 기난하지만 서로 마음을 나누며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 아름다운 자연 풍광 등을 영감에 담았다.

지난 1일 군부 쿠데타 발생 후 거센 저항 운동을 펼치고 있는 미얀마 국민들을 응원하기 위한 사진전이 광주에서 열린다. 이번 사진전은 5·18 당시 군부에 저항했던 경험을 가진 광주에서 활동중인 사진작가들과 현재 미얀마에서 활동중인 사진작가들이 함께 연대해 꾸민 전시로 의미가 있다. 광주의 작가들은 평화롭던 미얀마의 일상을 담은 작품을, 미얀마의 작가들은 쿠데타에 저항하는 국민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 각각 30점씩 모두 60점을 선보인다.

미얀마 국민들을 응원하는 특별사진전 'Save Myanmar'가 22일부터 28일까지 광주시 동구 남동 메이홀에서 열린다. 오랫동안 미얀마 여성들을 돕는 일을 해온 (사)광주아시아여성네트워크가 주관하고 메이홀은 공간을 무료로 제공, 마음을 보냈다.

미얀마의 일상을 만날 수 있는 사진은 김영혜·남인정·박명식·양승희·이상탁·이승룡·황향운씨 등 광주에서 활동중인 사진작가와 미얀마를 연구

하는 학자 등 모두 9명이 찍은 작품이다. 지난 해 미얀마 불탑관련 연구서적을 낸 천득영 한국학호 남진홍원 원장과 미얀마를 주제로 한 사진집을 내고 이번 전시를 기획한 김옥열 작가도 함께 참여했다.

미얀마 시위 사진은 미얀마 현지에서 활동중인 'Myanmar Pressphoto Agency'(양근)와 'Bagan Photographers Group'(바간) 멤버들이 촬영한 생생한 작품이다.

(사)광주아시아여성네트워크 황향운 대표는 "미얀마 국민들은 지금 절박한 심정으로 사실상 목숨을 걸고 투쟁중이어서 5·18을 겪은 광주가 이들을 외면하면 안되기 때문에 함께 한다는 마음을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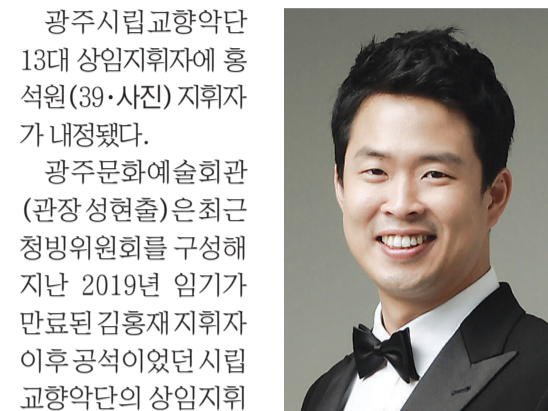
해야하고 실질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며 "사진전으로 작은 힘이나마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전 개막식은 22일 소규모로 진행되며 오후 5시부터 광주아시아여성네트워크와 참여작가들의 페이스북으로 생중계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아시아여성네트워크측은 전시회 개최를 계기로 미얀마 민주화운동을 돕기위한 성금 모금도 시작한다. 후원금은 현지 활동가 및 사진작가들 현지 사진전 개최 등을 위해 지원된다. (후원계좌 광주은행 1107-021-099192 광주아시아여성네트워크). 문의 010-4078-1192, 010-8345-0103.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광주시향, 상임지휘자 홍석원 지휘자 선임



광주시립교향악단 13대 상임지휘자에 홍석원(39·사진) 지휘자가 내정됐다.

광주문화예술회관(관장 성현출)은 최근 청빙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2019년 임기가 만료된 김홍재 지휘자 이후 공석이었던 시립교향악단의 상임지휘자에 홍석원 지휘자를 최종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홍 지휘자는 서울대 음악대학 작곡과를 졸업하고 독일한스 아이슬러 베를린 국립음악대학과 지휘과 디플롬 과정과 최고 연주자 과정을 졸업했다. 국내에서는 서울시향, KBS교향악단, 경기필하모니오케스트라를 객원지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클래식 음악의 본고장 오스트리아 티롤주립극장에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지휘자로 활동한 그는 독일 음악가협회가 선정하는 10인의 미래의 마에스트로에 선발되기도 했으며, 베를린 도이체심포니오케스트라,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오케스트라, 본 베토벤심포니오케스트라 등과의 무대를 성공적으로 진행해 왔다.

홍 지휘자의 임기는 오는 4월1일부터 2년이며 광주시립교향악단의 정기연주회와 특별연주회 등 연간 10회 이상의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2월 광주극장에선

'디지털 디톡스' → '디지털 거리두기'  
'코로나 레드' → '코로나 분노'  
국립국어원, 쉬운 우리말 선정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사용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을 가리키는 '디지털 디톡스'(digital detox)를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디지털 거리 두기'가 선정됐다.

국립국어원은 최근 새말모임을 갖고 '디지털 디톡스' 대체어로 '디지털 거리두기'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국어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짜증이나 분노를 뜻하는 '코로나 레드'를 다듬은 말로 '코로나 분노'를, 절망감이나 좌절감을 뜻하는 '코로나 블랙'을 다듬은 말로 '코로나 절망'을 각각 제안했다.

아울러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대중에게 노출하는 방법인 '크로스 미디어 기법'의 대체어로는 '매체 다양화 기법'을 선정했다.

한편 새말모임은 어려운 외국어 신어가 퍼지기 전에 쉬운 우리말 대체어를 제공하기 위해 국어 전문가 외에 외국어, 교육, 홍보, 정보통신, 언론 등 다양한 분야 사람들로 구성된 위원회로,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진행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

광주극장이 싱어송라이터와 함께하는 관객과의 대화를 비롯해 로맨스 명작, 필란드 화가의 삶을 다룬 신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제21회 전주국제영화제 최고의 화제작이자 배우 유다인, 오정세의 연기로 주목받은 영화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의 관객과의 대화(GV)가 20일 오후 3시 영화 상영 후 광주극장에서 열린다. 이날 GV에는 이태경 감독과 김병창 음악감독이 참석하며 진행은 광주 출신 싱어송라이터 최고은이 맡는다.

영화는 파견 명령을 받아 하청업체로 가게 된 정은이 1년의 시간을 버텨내고 자신의 자리를 되찾기 위한 여정을 담고 있다. 사내에서 인정받는

## '비포 미드나잇', '헬렌' '빛과 철' '나는 나를 해고...' 감독과 대화

우수사원이었음에도 한 순간에 권고사직 대상자, 그리고 파견 근로자가 된 정은의 상황은 노동자를 소모품으로 대우하는 우리 사회 단면을 보여준다.

18일에는 신작 '빛과 철'과 재개봉 하는 '비포 미드나잇'이 스크린에 오른다. '빛과 철'은 남편들의 교통사고로 얽히게 된 두 여자와 그들을 둘러싼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그린다. 제21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배우상을 거머쥔 염혜란을 필두로 영화 '사자', '귀향'과 드라마 '모두가 거짓말', '미스터 션샤인'에서 인상깊은 연기를 보여준 김시은, '별세' 이후 성장한 모습으로 돌아온 박지후의 연기 앙상블이 이목이 집중된다.

국내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의 '비포 미드나잇'은 '비포 선라이즈', '비포 섯'에 이은 세 번째 이야기로, 여행지에서 우연히 인연을 맺은 남녀가 사랑에 빠져 가족이 된 후 그리스로 여행을 떠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비포 미드나잇'은 그리스의 아름다운 해변 카르다미리를 배경으로 다시 찾아온 사랑을 그려냈으며 시리즈가 이어져 오는 동안 내내 호흡을 맞



'비포 미드나잇'

춰온 주인공 에단 호크와 줄리 델피의 자연스러운 연기가 돋보인다.

오는 25일 개봉하는 '헬렌: 내 영혼의 자화상'은 북유럽 대표 화가 헬렌 쉐르백이 걸어난 예술 인생을 조명한다. 예술계를 벗어난 시골에서 그림을 그리며 지내던 헬렌이 어느 날 젊은 예술가 에이나르를 만나게 되면서 둘 사이에 싹트는 사랑과 혼란스러운 감정을 다룬다. 북유럽의 낯설고도 고즈넉한 풍경과 바흐, 모차르트 등 클래식 음악의 조화로 한 폭의 명화 같은 영화를 선보인다.

문의 062-224-5858.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정진용 클라리넷 독주회 22일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정진용(사진) 귀국 클라리넷 독주회가 오는 22일 오후 7시 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독관악기 중 가장 늦게 만들어진 클라리넷은 고전과 시대 이후 독주악기로서 두각을 나타냈으며, 낭만시대가 지나고나서야 클라리넷을 위한 곡들이 만들어졌다. 이번 공연에서는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현대 곡들을 선곡해 새로운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레퍼토리는 드뷔시 '소나타 제2번', 비틀만 '클라리넷 독주를 위한 환상곡', 호로비츠 '소나티네', 부르흐의 '클라리넷과 비올라(첼로)를 위한 8개의 소품' 그리고 바시 '리플레토 환상곡' 등이다.

이날 공연에는 독일 에센 국립음대를 졸업한 피아니스트 김진경과 첼리스트 강하연이 함께한다.

정진용은 전남대학교와 독일 에센 국립음대 전문 연주자과정과 실내악 과정을 졸업했다. 이후 독일 하겐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협연했고 제4회 금호주니어콘서트에서 독주회를 가졌다. 현재 제이 트리오와 광주 클라리넷 앙상블 리더로 활동하고 있다. 전석 2만원. 문의 010-6331-6834. /전은재 기자 ej6621@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대한민국소외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수상 혁신상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수상 [혁신상품부문] 수상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앞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